

'옥중기' 출판 붐 이룬다

불행했던 시대의 반영...서간문이 주류 이뤄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 하얀 종이 위에 붉은 글씨로 자유를 쓸 수도 있고 /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사랑의 이름을 그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릴 수 없습니다 / 펜도 없고 종이도 없고 그리운 벗이 있어도 담 너머로 엮서 한장 띄울 수 없습니다.”

남민전 사건으로 10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시인 김남주씨는 옥중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에서 구속 양심수들이 겪는 옥살이의 고통중의 하나를 이렇게 고백한다.

필기구와 종이를 지닐 수 없고 집필 또한 자유롭지 않은 옥살이의 현실은 현재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근 서점가에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 안'의 생활과 생각들을 '담 밖'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옥중기록을 모은 책들이 다수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단이나 팜플렛, 잡지 등에 단편적으로 수록되어 대학가를 중심으로 몇몇 관심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암암리에 돌려 읽혀지던 옥중기록물들이 단행본 형태로 공개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 '6·29선언' 이후 몇차례에 걸친 사면과 가석방 조치에 의해 비교적 많은 수의 양심수들이 출옥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옥중기록물은 30종이 넘는데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옥중서간집. 김민석, 허인회, 오수진 등 80년대 초반에 학생운

옥중기록의 공개출판이 본격화된 것은

80년대 후반. 감옥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 처해진 양심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폭넓은 공감을

확보한 이들 책은 분단과 왜곡된

정치현실의 희생자로 엄존하는

양심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했다.

동을 이끌다 구속되었던 학생양심수들의 옥중편지를 묶은 「간힌 자유인 열린囚人」(공동체)이 서간집으로는 처음으로 출판된 뒤 현재까지 10여종의 책이 나와 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햇빛)은 통혁당 사건으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 20일을 복역하고 지난 88년 8월에 석방된 신영복씨의 편지모음. 감옥이라는 극한상황이기에 오히려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성찰과 생명체에 대한 사랑 등이 따뜻하면서도 절제된 문체 속에 담겨있다. 발간 이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10만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 옥중기록물 출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와 아울러 서준석씨의 「옥중서간집1~3」(형성사), 안재구씨의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광야)는 10년 이상의 수감생활중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밖에도 장기표씨가 수배중 공동생활을 해야 했던 한 가정에서 만난 누이 김선옥씨의 결

혼을 맞아 보내는 편지를 모은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형성사)와 문익환 목사의 「통일을 비는 마음」(화다) 등이 근년에 나온 옥중서간집이다. 옥중서간집의 출간은 올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몽키스패너를 잡으면 세상살이가 더욱 빛나보일 것입니다」(서동석 저, 동쪽나라) 「나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온 곰이로소이다」(윤철호 저, 일빛) 「긴 터널 푸른 터널」(이재오 저, 형성사), 「두 하늘에 띄운 그림」(김영 저, 눈) 「사형수 작곡 양심수 작사」(김성만 저, 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옥중서간집 외에 옥중기록물의 한 형태로 출판되어 있는 것에는 항소 및 상고이유서 그리고 법정진술 등을 모은 책들이 있다.

“슬픔과 노여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러시아 시인 네크라소프의 시구절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섬세한 문장과 명쾌한 논리로 화제를 모았던 유시민씨의 「아침으로 가는 길」(학민사)은 항소이유서 공개출판의 효시를 이룬 것. 이후로 나온 항소이유서, 법정진술 등은 시국사건의 재판자체가 외부로 향한 연로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그것의 정당함을 선전하는 한편 구속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장으로 활용됨에 따라 재판부만이 아닌 일반 국민을 향한 메시지 성격을 띠게 된다.

80년대의 굵직굵직한 시국사건의 주역이었던 문부식, 김영환, 권인숙, 김문수 등 양심수 10인의 항소이유서를 모은 「항소이유서」(사상계)는 이러한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책이다. 이밖에 지난해 북한방문이나 평양축전 관련인

사들의 항소이유서 및 법정진술들을 모은 책도 여러권 나와 있다.

임수경씨의 「어머니, 하나된 조국에 살고 싶어요」(돌베개)와 문규현 신부의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상·하권, 도서출판 두리) 김진엽씨의 「내 조국의 철창에 갇혀」(돌베개), 문익환 목사의 「가슴으로 만난 평양」(삼민사) 등이 그것. 이들 책은 대체로 항소이유서로 대신한 방북경위와 활동보고를 통해 자신들의 '범법행위'의 정말을 밝히고 실정법의 허상과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밖에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윤철호, 오동렬 등 인노련 사건 관련 구속자들의 법정진술을 모은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일빛)가 있다.

이러한 옥중기록물들은 감옥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상황속에 처해진 양심수들의 진솔한 내면고백인 동시에 세계와 역사, 민족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을 달굴질해나가는 치열한 사색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아울러 감옥 밖의 사람들 보다 훨씬 따뜻한 사랑으로 인간의 삶을 보듬어 내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간사 김창규씨는 “옥중기록물을 통해 확보된 공감은 곧 분단의 역사와 왜곡된 정치현실의 희생자로 엄존하는 양심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인식은 현존하는 1316명의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방향지워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남정 기자

종합출판시스템
Total Publishing System



이 예민한 感覺과 세련된 技術은 컴피아트 정신의 표현입니다

축적된 지식과 창의력이 만나는 곳
십여년의 오랜 경험과 전문가적 기질을 바탕으로 전자조판의 入·出力에서 편집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깊이있는 이해를 통해 감각의 차별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조판 SYSTEM

- 입력기 15대
- 국·한·구문 혼용 출력기 1대, 구문 전용 출력기 1대
- 교과서, 참고서, 어학교재(러시아어 포함), 사진, 단행본

편집 DESIGN

- Text 디자인, 레이아웃, 화상 텍스트시스템
- 표지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컴피아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
FAX : 739-9356